

# 이주자 공간의 지도화와 공간분포의 특성: 국적과 체류유형을 중심으로\*

이용균\*\* · 이현욱\*\*\*

## The Mapping of Migrant Space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Migrant: Focusing on the Nationality and Migration Status\*

Yong Gyun Lee\*\* · Hyunuk Lee\*\*\*

**요약 :**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 글로벌 금융과 문화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이주의 증가를 가져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가치의 변화, 교육의 글로벌화를 경험하면서 외국인 이주자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최근 이주 연구는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공간스케일에 주목하는데, 이주자는 국경을 초월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착지의 사회문화에 착근되면서 로컬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시군구 및 서울시 동별 스케일에서 이주자 공간의 특성을 국적과 체류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주자는 국적과 체류유형별로 거주 공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정 장소를 점유하면서 사회적 자본을 발달시키고 이주자 공간을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시아 이주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주요 공장지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및 호주와 같은 유럽계 이주자들은 용산구 일대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성을 보인다. 교육이주자는 기존 자국민의 이주자가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다수인 결혼이주자는 대부분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한국계중국인이 밀집된 곳이거나 수도권 내 주요 공장지대이다. 본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체류유형에 의해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주자를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동질화하여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 이주자, 이주자 공간, 교육이주자, 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

**Abstract :**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nd transportation, and the expansion of global finance and culture have increased migrants in the world. In case of Korea, the changes of industrial structure, the changes of social values and the globalization of education have brought a sharp increase of foreign migrants. Recent migration study tends to giving attention on the spatial scale by migrant's social relations. Migrants are not only trying to maintain the transnational social relations, but also embedding into the local's socio-cultural environment, deriving local changes. This research attempted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migrant space with diverse of scale levels through categories of states and visa-type in the city-gun-gu scale in national level and dong scale in Seoul. This research clearly shows the fact that migrant's residential spaces are different by nationality and migration status. Migrants tend to utilize a certain kind of social capital, making the new space of migrant. Routine labor migrants, mainly from asian countries, are concentrated on the manufacturing areas, while professional labor migrants from European countries such as U.S.A., U.K. France, Germany, and Australia are inclined to settle in the Yongsan area. Also There are several distinctive spatial distribution related to migration status (visa-type).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30-B00211).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yonggyunlee@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연구교수(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leehyunk@ewha.ac.kr)



Educational migrants tend to find their residential place nearby their ethnical anchorage. Marriage migrants who are dominated by female are highly concentrated into the city areas which are nearby the place of Korean-chinese's residential areas and the manufacturing areas. This research clearly shows that the space of migrants is different by nationality and migration status. Thus, the homogenisation of migrants by ethnic or state tend to raise a problem in migration studies.

Key Words : Migrant, Migrant space, Educational migrant, Labor migrant, Marriage migrant

## I. 서론

인터넷과 교통의 발달, 글로벌 금융과 문화의 확산은 사람과 정보의 이동성 증가를 가져오면서 국제이주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00년 전 세계의 이주자는 1억 5,000만 명이었으나, 2012년 현재 약 2억 1,4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UNDESA, 2012). 2012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3%가 국제 이주자로 간주되어, 전 세계 인구 33명 중 한 명은 국제 이주자에 해당한다. 2012년 유엔의 경제사회부 추정에 의하면 전 세계 이주자의 49%가 여성으로, 특히 국제노동 분업에 의한 재생산 부문에서 여성 이주자의 활용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구즈먼, 2011).

기존의 이주 연구는 배출-흡인(push-pull)의 현상 위주로 설명되었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이 현상에 의해 이주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고(Gilmartin, 2008), 이주자의 민족적 연결을 강조하는 디아스포라와 초국가적 이주가 주목을 받게 되었다(Brickell and Datta, 2010; Samers, 2010). 디아스포라는 기존의 이주연구에서 강조한 배출요인을 고려하면서도 이주자의 소속감과 연결성을 정체성이란 맥락에서 접근하며, 이주자를 기원지와 정착지를 포함한 다수의 로컬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주체로 인식하며, 문화적 정체성의 토대는 영역(territory)이 아니라 기억이라고 본다(포르티어, 2011; Dahلمان, 2004).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는 최근 국제이주의 설명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론으로 과거에 비하여 현재의 이주자들은 정착지에 적응함과 동시에 기원지와의 적극적 연결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함을 강조한다(이영민, 2011; Gielis, 2009; McEwan, 2004; Schiller and Çağlar, 2009).

전 세계 이주자 중 약 30%는 아시아로의 이주로 추정되고 있으며(IOM, 2012), 한국으로의 이주자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1년 한국의 외국인 체류자는

501,968명이었으나, 2010년 1,261,415명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말 법무부에 등록된 외국인 수만 982,461명에 이른다(법무부, 2011). 전 세계의 이주자는 같은 기간 동안 약 43% 증가한 반면에(UNDESA, 2012), 한국의 외국인 이주자 유입은 151%로 빠르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소득수준의 향상, 고학력화, 저출산화 등에 의한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이주자가 급증하였고(최병두, 2009), 경제의 불균등 발전과 사회적 가치변화로 인하여 여성의 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하위 계층 남성들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이용균, 2007).

이러한 외국인의 급격한 증가에 직면하여 한국은 다문화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다문화사회란 이주자를 포함한 다양한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이나 문화가 사회의 의미있는 구성으로 인식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김이선 등, 2011a). 한국에서 다문화사회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노동이주자의 급격한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주자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결혼이주는 단일문화라고 인식되었던 한국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김이선 등, 2011b).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교육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등 모든 이주자가 다문화 논의 속에 포함되고 있다.

이처럼 이주자와 외국인 체류자가 증가하고 정부의 다문화정책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이주자 연구가 대두되었으나, 지금까지 전개된 연구는 대부분 다문화로의 동화와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다(김이선 등, 2011a). 최근 이주자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다문화 구역에 대한 연구, 결혼이주자의 거주 분포,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의 지리적 분포 등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류주현, 2012; 송도영, 2011; 임석희·송주연, 2010). 이러한 이주자 공간에 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주자에 의한 로컬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다. 이주자는 한 곳에 정착하면서 민족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주자가 정착한 곳을 중심으로 신규 이주자가 유입되고,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주자의 초기 정착지(anchorage)는 일종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으로서 작동한다(Mitchell, 2000; Vertovec, 2009). 이주자는 이러한 이주자 정착지를 중심으로 공간, 장소, 스케일을 가로질러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적 장(social field)으로서 이주자의 네트워크를 특정 장소에 착근시킴과 동시에 초국가적 네트워크를 발전시키게 된다(Dahinden, 2010; Gielis, 2009).

본 연구는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초국가적으로 어떻게 연결되고, 로컬의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밝히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의 초기 연구로서, 국내 이주자의 공간 분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를 전국 시군구 및 서울시 동별 스케일에서 국적별(아시아 이주자와 유럽 이주자로 구분), 체류 형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국적별로 이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국가, 민족 또는 인종 중심의 연구라는 지적(예: 방법론적 민족주의)이 대두될 수 있으나, 이는 국적별 이주자의 공간분포와 체류유형별 공간분포에서 차이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국내 이주자 공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국내 이주자 공간의 이해에 대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특히 이주자 공간을 수도권 중심이나 서울 중심으로 이해하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다양한 이주자가 서로 다른 로컬을 만들고 있음을 강조

하기 위한 토대 연구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2011년 법무부의 등록 외국인 자료와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의 내부자료에 근거하여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주자와 로컬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 지속할 예정이다.

## II. 이주자의 현황과 이주자 공간

우리나라 해외 이주자는 2000년대 접어 급격한 증가를 경험하였다. 2001년 약 50만 명이었던 외국인 체류자가 2007년부터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법무부, 2011).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었다(김이선 등, 2011a).

체류 구성별 이주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125만 명 중에서 교육이주자는 87,480명이며, 노동이주자 중 전문직 노동이주자는 44,320명,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513,621명, 결혼이주자는 141,654명이었다. 이 가운데 교육이주자, 전문직 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2008년 이후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그림 1). 단순직 노동이주자의 증가가 둔화되는 이유는 정부가 외국인 체류자의 급증을 제한하기 위하여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고, 2007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2005-2006년의 단순직 노동이주는 급격히 감소했던 반면 2007-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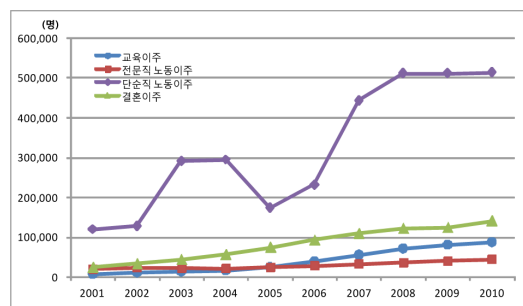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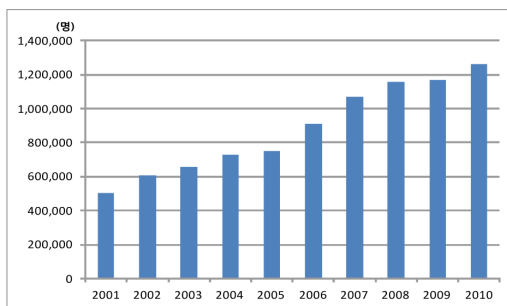


그림 1. 외국인 이주자 수와 체류 구성별 변화

출처 : 법무부, 2011

사이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 2009년부터는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 2001년부터 결혼이주자와 교육이주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결혼이주자의 경우, 과거의 농촌 중심의 국제결혼에서 도시 중심의 국제결혼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창원시, 안산시, 수원시, 울산시, 부천시 등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국제결혼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류주현, 2012). 교육이주자는 2005년까지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2006년 이후 교육이주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1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2011년 현재 등록 외국인의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전체의 31%인 302,44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은 279,220명으로 29%를 차지한다.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의 65%(인천 5.1%)가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에서 외국인의 분포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전국 시군구 수준에서 외국인 수가 많은 대표적인 곳은 영등포구(42,112명), 안산시 단원구(37,487명), 구로구(31,440명), 화성시(24,665명), 금천구(20,818명) 등이다. 이들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외국인 집중지역에 해당하는데, 특히, 안산시의 외국인 수는 44,316명으로 인천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약 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과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10%를 넘고 있는데, 안산시 단원구와 서울시 영등포구가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다. 외국인 비율이 높은 지역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영

등포구, 금천구, 포천시, 구로구는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주변지역에 임대료가 낮은 주택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특징이 있으며, 중구와 종로구는 상대적으로 한국인의 인구가 적은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여 준다. 예를 들어, 종로구의 주택지역에 중국으로부터 노동이주자와 교육이주자의 상당수가 거주하고 있다. 용산구는 OECD 국가의 이주자들이 밀집된 곳으로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음성군과 영암군은 농촌지역으로 영농단지와 결혼이주자 유입에 의해 외국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외국인의 성별 특성을 살펴보면, 공장과 영농단지가

표 1. 외국인 인구 비율 상위 10개 시군구

지역	총 인구 (명)	외국인 수 (명)	외국인 비율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350,937	37,487	10.7
서울시 영등포구	396,243	42,112	10.6
서울시 금천구	242,510	20,818	8.6
전라남도 영암군	58,748	4,607	7.8
경기도 포천시	140,997	10,930	7.8
서울시 구로구	417,339	31,440	7.5
서울시 중구	121,144	8,378	6.9
충청북도 음성군	84,088	5,349	6.4
서울시 종로구	155,575	9,037	5.8
서울시 용산구	227,400	12,789	5.6

출처 : 법무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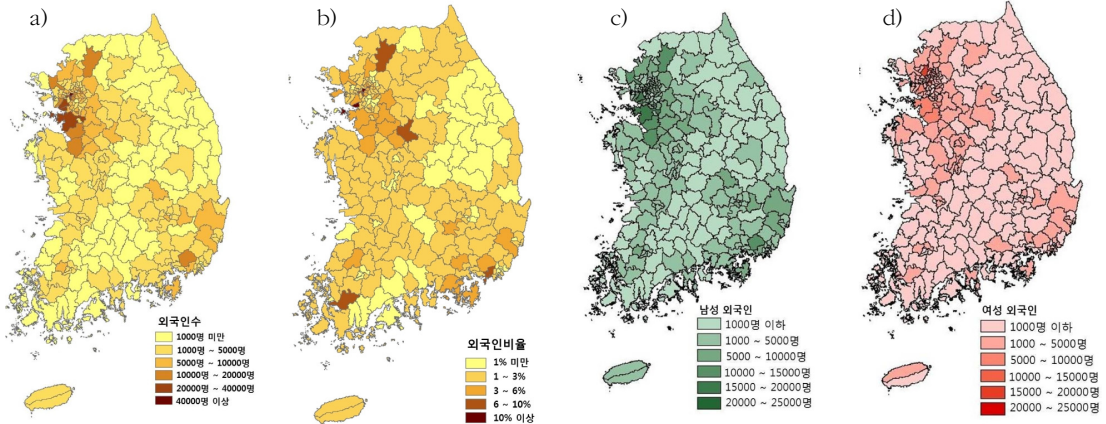


그림 2. 전국 시군구별 외국인 수와 외국인 비율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밀집된 지역은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제조업체가 많지 않은 도시지역과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남성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곳은 김해시(80%), 영암군(76%), 포천군(75%), 화성시(74%), 음성군(74%) 등이며, 여성의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곳은 정선군(73%), 태백(60%), 전주(57%), 청주시(55%) 등이다. 경기도는 남성 외국인은 59%인 반면에, 서울은 남성 외국인이 48%로 나타난다. 경기도에 남성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화성, 안산, 김포 등 공장지대가 넓게 분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강원도의 대부분 지역은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농업과 관광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 여성결혼이주자의 유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III. 국적별 이주자 공간의 특성

#### 1. 전국 시군구별 이주자 공간의 특성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이주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며, 이 중 한국계중국인이 389,398명이고 중국인은 147,301명이다. 중국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으로부터 많은 이주자가 유입되고 있다.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이주자들은 전국 곳곳에 거주하고 있으나, 수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계중국인을 제외하고는 이들 이주자들의 서울 거주 비율은 매우 낮은데, 인도네시아 3%, 태국 5%, 베트남 6%, 우즈베키스탄 7%로 나타난다(표 2). 반면에, 경기도 거주 비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태국 이주자의 49%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아시아로부터 유입되는 이주자는 국가마다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공통된 점은 한국계중국인을 제외하고 모든 이주자들은 제조업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3). 이들 이주자들의 대표적인 거주 지역은 경기도의 안산과 화성 지역 그리고 경남의 김해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의 거주 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단기간 체류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이주를 선호하지 않으며, 대부분 공장 내 숙소나 공장 근처에서 숙소를 거주지로 선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아시아의 이주자 중에서 서울로의 거주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주자들은 한국계중국인, 중국인, 몽골 이주자이다. 한국계중국인은 서울의 영등포구, 구로구, 그리고 안산시 단원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상세한 것은 뒷 부분에서 설명). 중국(한족),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이주자는 특정 지역으로의 집중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경기도의 거주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에, 태국과 우즈베키스탄 이주자들은 각각 화성시(10.8%)와 안산시 단원구(8.0%)로의 집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아시아로부터의 이주자는 노동이주자가 많으며 대체적으로 경기도 일대의 공장지대 근처에 집중되고 있으나, 이것을 아시아 이주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이주자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다양성(노동이주자, 결혼이주자 등), 국가별 차이, 그리고 보다 중요한 개인이나 집단별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시아 이주자의 공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OECD 국가 중 이주자가 많은 국가는 미국(26,466명)

표 2. 주요 아시아 국가 이주자 공간 분포의 특징

국가	이주자(명)	서울비중	경기비중	주요 집적지역
한국계중국인	389,398	46%	35%	영등포구(9.8%), 구로구(7.3%), 안산 단원구(5.6%)
중국인	147,301	23%	24%	안산 단원구(3.3%), 동대문구(2.9%), 성북구(2.0%), 경산시(1.8%)
베트남	110,564	6%	27%	김해시(3.9%), 화성시(3.7%), 시흥시(2.5%), 안산 단원구(2.0%)
필리핀	38,366	10%	37%	화성시(3.8%), 안산 단원구(3.2%), 포천시(2.9%), 김해시(2.8%)
인도네시아	29,573	3%	26%	김해시(4.8%), 화성시(4.8%), 안산 단원구(4.5%)
태국	25,977	5%	49%	화성시(10.8%), 김포시(4.1%)
우즈베키스탄	24,380	7%	30%	안산 단원구(8.0%), 김해시(6.3%)
몽골	21,278	22%	37%	화성시(3.6%), 광주시(3.5%), 성북구(3.1%), 김포시(3.0%)

출처 : 법무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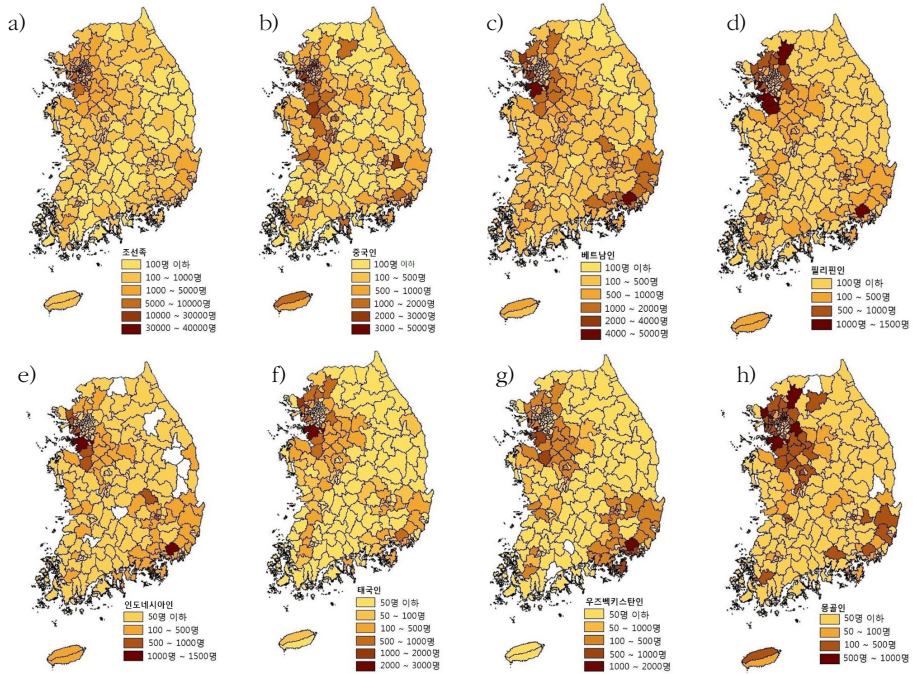


그림 3. 전국 시군구별 아시아 주요 국가 이주자의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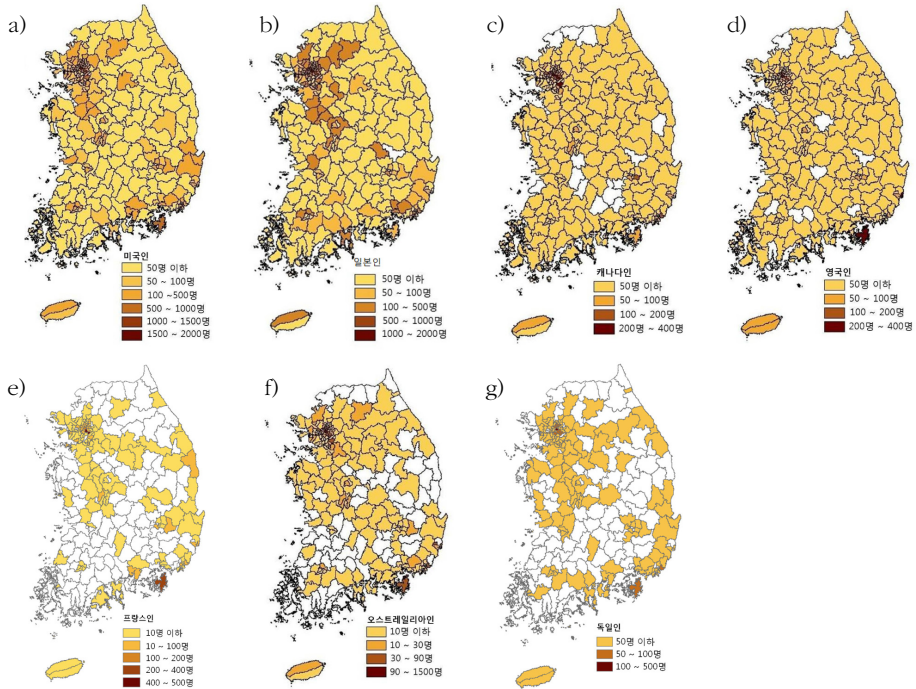


그림 4. 전국 시군구별 OECD 주요 국가들의 이주자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과 일본(21,126명)이며, 최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으로부터의 이주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이주자들은 서울로의 집중이 높은 가운데, 특히 프랑스(64%)와 독일(59%)은 서울로의 집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표 3 참조).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의 이주자들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전국 시군구 수준에서 이들 국가들의 이주자들의 주요 거주지역은 용산구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일 이주자의 19%는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의 이주자들은 전국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면서 비교적 분산적 패턴을 보이거나, 프랑스와 독일의 이주자들은 보다 집중된 거주 패턴을 나타낸다.

지방 도시 중에서 이들 OECD 국가로부터 이주자가 많이 거주하는 곳은 거제시로 영국 이주자의 8%, 프랑스 이주자의 9.4%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거제시의 조선업 및 기타 제조업 분야의 전문직 노동이주자와 긴밀히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프랑스 이주자는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서초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는데, 전체

프랑스 이주자의 21%가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다.

이와 같이, OECD 국가의 이주자들은 아시아 국가 이주자의 공간적 분포에 비하여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는 OECD 국가의 이주자 중 단순 노동이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시사하며, 이들 이주자들은 서울과 도시 중심의 생활패턴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상세한 설명은 뒷 부분 참조). 하지만, OECD 국가별 이주자의 거주 패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2. 서울시 이주자 공간의 특성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지역은 영등포구(15.1%), 구로구(11.3%), 금천구(7.5%), 관악구(7.1%)의 순서이며, 가장 낮은 구는 도봉구(0.9%), 강북구(1.3), 노원구(1.5%) 등이다. 서울의 남서부 지역은 이주자가 많은 반면에, 서울의 동북부 지역은 이주자가 적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5). 이처럼 서울시 내부에

표 3. OECD 주요 국가 이주자 공간 분포의 특징

국가	이주자(명)	서울 거주(%)	경기 거주(%)	주요 집적지역
미국	26,466	37	22	용산구(5.7%), 강남구(4.4%)
일본	21,126	38	21	용산구(8.2%), 마포구(3.4%)
캐나다	6,572	34	21	용산구(5.5%), 분당구(3.2%)
영국	4,748	32	12.9	거제시(7.9%), 용산구(7.5%)
프랑스	2,126	64	6.3	서초구(21%), 거제시(9.4%)
오스트레일리아	1,753	43	13.7	용산구(9.9%)
독일	1,610	59	8.6	용산구(19%)

출처 : 법무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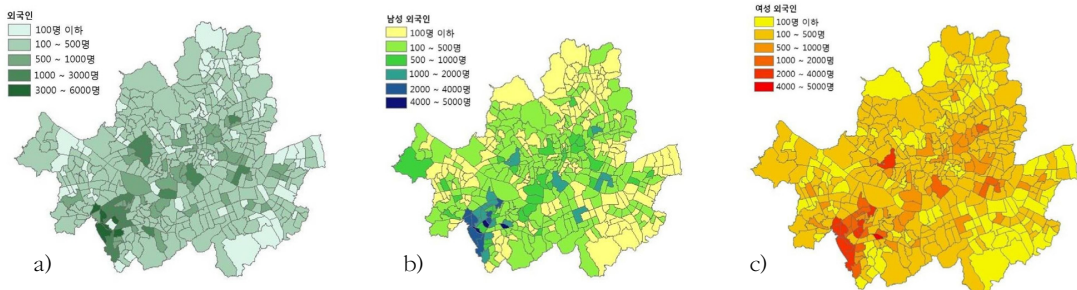


그림 5. 서울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서 이주자 거주 공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산업구조, 지가, 초기 이주자 정착지의 역할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구체적인 이주자의 거주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별 수준보다는 동별 수준의 접근이 요구된다.

서울시 행정동 수준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 분포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주자가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 신림동(9,114명), 영등포구 대림2동(8,127명), 구로구 가리봉동(8,403명), 구로2동(6,317명), 금천구 독산1동(5,967명)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표 4). 이들 지역은 과거에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집중되었던 곳으로 초기 노동이주자의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던 곳이며, 주변지역에 저가의 주택이 밀집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이들 지역은 초기 이주자의 유입이 이루어진 이래, 일자리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토대로 작용하면서,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이곳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에서 외국인 이주자가 1,000명 이상인 행정동은 역삼1동(1,765명), 풍납1동(1,166명), 잠실본동(1,003명)인데, 이들 지역에 유입된 이주자는 국적과 체류유형에서 대림동 일대의 이주자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별을 고려했을 때 이주자의 거주 지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가리봉동, 독산1동, 신길5동 등은 남성의 비율이 높은 곳이며, 신림동, 독산2동은 여성이 비율이 높은 곳이다. 특히, 신촌동은 여성의 비율(65%)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남성 이주자일수록 공장이나 설비 시설 등과의 접근도가 거주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에, 여성 이주자의 거주지 선택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서비스와의 접근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 대부분의 이주자들은 민족단위의 집거지역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주자 민족의 집거지역이 일상생활을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 이주자들의 거주형태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아시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로의 집중도가 높은 이주자들은 한국계중국인(46%), 대만인(42%), 중국인(23%), 몽골인(22%)으로 이들은 서울의 다양한 곳에 거주하고 있으나, 베트남인, 필리핀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은 서울의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서울 내 거주지역도 일부 지역으로 국한되는 특성을 보인다(그림 6).

한국계중국인의 거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992명), 노원구(1,444명), 강북구(2,007명), 서초구(2,095명), 은평구(2,212명), 강남구(2,259명)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한국계중국인의 핵심지역으로부터 거리가 멀거나, 소규모 공장(인쇄, 기계수리, 정비 등)이 밀집되지 않았거나, 아파트가 많아 저가의 주거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비싼 곳에 해당한다. 한국계중국인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곳은 대림2동(5,338명), 구로2동(4,195명), 가리봉동(3,910명), 자양4동(2,770명), 가산동(2,688명), 대림3동(2,348명)이다. 이들 지역은 과거 중소기업의 제조업이 밀집된 곳이거나 그 주변지역으로 현재까지 값싼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다. 자양4동을 제외하고는 모두 과거 구로공단의 주변지역에 해당한다. 자양4동에 한국계중국인이 밀집된 이유는 이 지역이 성수동 공장지대에 인접해 있으며, 근처에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접근도가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라고 판단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대체적으로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행정동 수준에서 살펴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화양동(1,226명), 이문1동(901명), 흑석동(568명)으로 한국계중국인이 거주하는 공간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은 한국계조선족의 거주가 많지 않는 공장지대의 주변지역이나 임대료가 싼 노후주택이 밀집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대만인은

표 4. 서울시 이주자 상위 행정동의 성별 특성

순위	전체 이주자(명)	남성 이주자(명)	여성 이주자(명)
1	신림동(9,114)	가리봉동(4,594)	신림동(4,726)
2	대림2동(8,127)	신림동(4,388)	대림2동(3,912)
3	가리봉동(8,403)	대림2동(4,215)	가리봉동(3,809)
4	구로2동(6,317)	구로2동(3,912)	구로2동(3,002)
5	독산1동(5,967)	독산1동(3,203)	독산2동(2,764)
6	가산동(5,509)	가산동(3,056)	가산동(2,453)
7	구로1동(4,997)	구로1동(2,706)	구로1동(2,291)
8	대림1동(4,707)	대림1동(2,521)	신길1동(2,193)
9	신길1동(4,529)	신길5동(2,421)	대림1동(2,186)
10	신길5동(4,526)	신길1동(2,336)	신촌동(2,138)

출처 : 법무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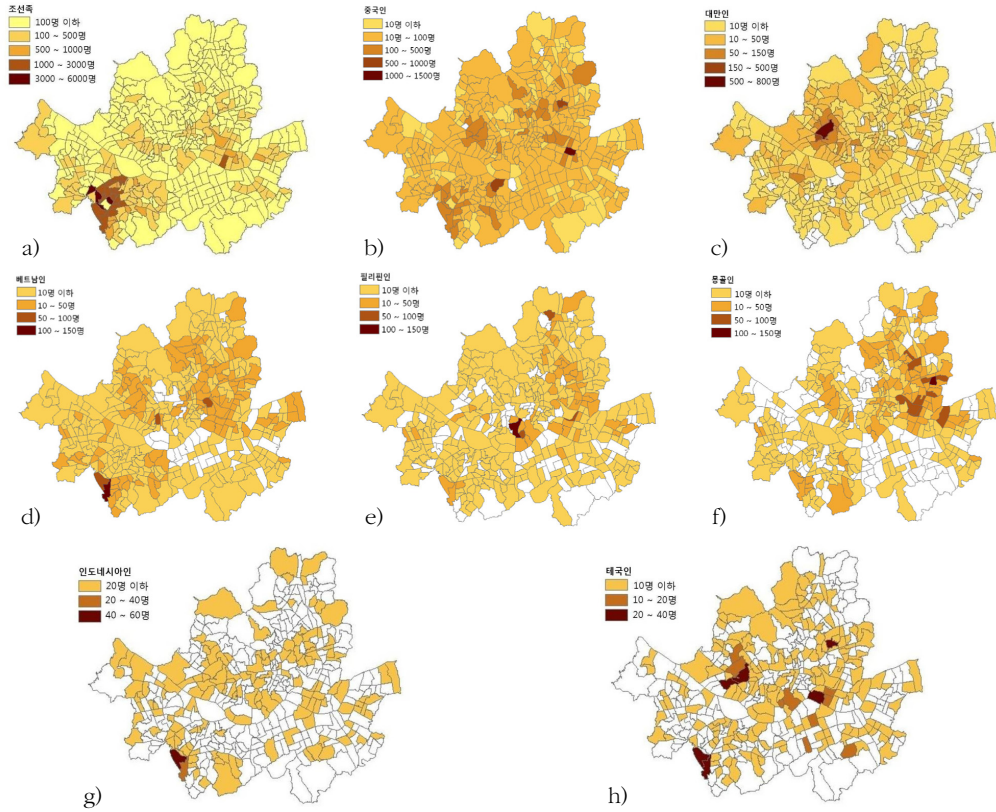


그림 6. 서울시 아시아 주요 국가의 이주자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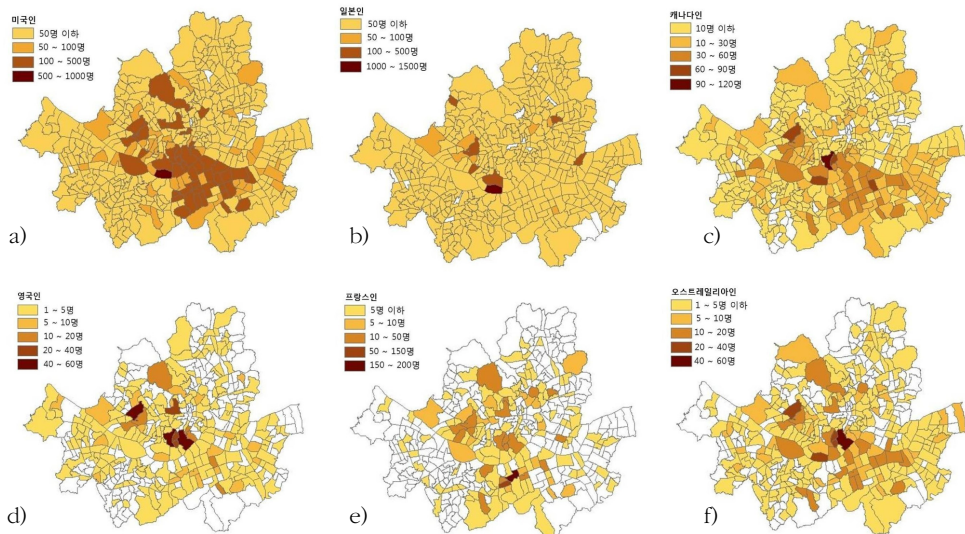


그림 7. 서울시 OECD 주요 국가의 이주자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총 8,824명이 서울에 거주하는데 이 중 14%는 연희동(9.3%)과 연남동(4.5%)에 집중되고 있다. 이는 과거부터 이 일대를 중심으로 화교 경제권이 형성되던 전통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몽골인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는데, 주로 거주하는 곳은 용답동, 석관동, 망우3동, 송정동 등이다. 이들 지역에 몽골인이 집중되는 이유는 이 지역은 몽골인의 사회적 관계에서 핵심으로 작용하는 동대문 몽골타운으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가의 주택지역이 밀집된 특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주자의 서울 거주 비율이 낮은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은 서울 내 거주지역에서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베트남인들은 독산1동, 마장동, 청파동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며, 필리핀은 용산2가동, 이태원1동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며, 인도네시아인은 가산동과 독산1동에 주로 거주하며, 태국인들은 가산동(36명), 독산1동(31명) 등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민족이나 국가별 이주자를 유입하는 정착지(anchorage)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또한 이들 정착지는 신규 이주자의 집적을 유도하고 이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확대되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일부 아시아 이주자들은 민족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는데, 한국계중국인은 가리봉-구로2동-대림2동으로 이어지는 지역을, 대만인은 연희-연남동을, 몽골인은 용답-장안-면목으로 이어지는 축을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이 낮은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태국인은 아직 이주자의 사회적 자본이 미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OECD 국가의 이주자들은 거주 패턴이 아시아 이주자들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이주자의 경우 이촌1동(851명), 한남동(463명), 한강로동(444명), 연희동(410명), 이태원2동(342명), 여의도동(307명), 압구정동(294명) 등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미국 이주자의 거주공간 선택에는 과거 미군 용산기지와 이태원 상가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은 이촌1동(1,012명)에 서울 거주자의 12.5%가 집중되어 있다. 이촌동에 일본인이 집중된 이유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은 장기적인 목적 하에 군사주둔기지를 이 일대에 조성하게 되었고, 이후 일본인 관리의 관사와 상가가 집중되면서 이곳은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인의 주된 거주지역의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주백, 2007). 캐나다인은 용산로2가동(114명), 이태원2동(78명), 연희동(88명)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나, 여의도와 강남3구 일대에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영어 강사와 관련된 이주자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영국인은 서울 거주 이주자 수가 많지는 않으나 한남동(43명), 용산2가동(43명), 연희동(41명)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호주인은 한강로동(45명), 연희동(32명), 이촌1동(30명), 이태원1동(28명), 이태원2동(25명)에 주로 분포한다. 프랑스인은 반포4동(175명), 방배4동(114명)에 집중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 지역 소재의 서래마을은 서울에서 프랑스인의 대표적인 마을에 해당한다.

이처럼 OECD 이주자들은 과거 서울의 중심이었던 강북지역이 이들의 거주공간 선택에서 일종의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촌-한강로-이태원-한남 일대가 OECD 이주자들의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지역이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된 것은 과거부터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거 및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으며, 대사관(대사관제)을 비롯한 외교 시설물이 집중되어 있으며, 고급 주택지역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IV. 체류유형별 이주자 공간의 특성

### 1. 교육이주자의 공간 분포

글로벌화의 진전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유학생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OECD의 고등교육(대학 이상) 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해외 유학생 수는 약 370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0년대 이래 연평균 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OECD, 2011).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유입은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위한 국가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이용균, 2012). 전 세계 유학생의 77%가 OECD 국가로 유입되고 있어, 선진국 중심의 유학생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3년 12,314명에 불과하던 외국인 유학생이 2010년에는 83,84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1년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중 교육이주자 수는 총 103,838명에 이르며, 한국어연수생을 포함하면 그 수는 122,893명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처하고, 유학부문의 대외수지 적자를 줄이고,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목적으로 교육이주자는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황정미 등, 2011). 해외 유학생 유치는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 확대, 관광의 활성화 등과 같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이용균, 2012). 국내 교육이주자의 국가별 특성을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68.9%를 차지하며, 일본(4.6%), 미국(2.6%), 베트남(2.3%), 대만(1.7%)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이주자에 대한 전국 시군구별 스케일에서 거주 분포의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로의 집중이 높은 가운데 주요 광역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교육이주자가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8). 전체 교육이주자의 33.3%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교육이주자가 가장 많은 시군구는 동대문구(5,561명), 성북구(4,194명), 서대문구(3,483명)의 순서이다(표 5).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가 교육이주자 수가 많은 것은 전체 중국인의 37%가 이들 4개 구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들 지역의 중국 노동이주자의 집중은 새롭게 도착한 중국 교육이주자에게 각종 정보와 사회적 관계의 기초를 제공하면서 이주자의 정착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즉, 기존의 민족 집거지역은 새로운 이주자를 불러들이는 연쇄이주의 장소이자 사회적 자본이 배태되는 장소로서 기능한다. 한편, 경산시와 거제시의 교육이주자 비율이 높은 것은 과거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 유학생 중 일부는 산업연수생의 자격으로 입국하여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이주자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이가 나타난다. 남성 교육이주자가 54%로 다소 많으며, 남성 교육이주자가 가장 집중된 곳은 거제시로 총 2,344명이 거주하는 반면에, 여성 교육이주자는 거제시에 불과 105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는 거제시에 산업연수생 자격의 중국인 남자 유학생의 상당수가 거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녀별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성별에 따른 이주자 수의 급격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 2. 노동이주자의 공간분포

고용노동부는 이주자와 전문가의 신분을 동시에 포함하는 전문직 노동이주자를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원(E-3), 기술지도자(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분류를 토대로 전문직 이주노동자를 분류하였고, 2011년 현재 45,272명으로 파악되었다. 전문직 노동이주자 이외의 노동 관련 이주자는 모두 단순직 노동이주자로 분류하였으며,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238,702명에 이른다. 전국 시군구 분포에서 주된 특징은 전문직 노동이주자는 서울시에 29.5%, 경기도에 22% 거주하며,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서울시에 2.6%, 경기도에 33% 거주하고 있다(그림 8).

전문직 노동이주자가 가장 집중된 곳은 서울시 용산구와 강남구, 성남의 분당구, 수원시의 영통구이다(표 6). 상위 10위 안에 포함된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 지역은 기업의 연구기능, 교육기관, 학원 등이 발달한 특징을 보여준다. 즉, 전문직 노동이주자와 연구 및 교육기능 사이에는 큰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직 노동이주자는 남성이 62%를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 이주자의 비율이 높은 곳은 강남구, 강서구, 영통구(수원), 서초구, 관악구 등으로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이나 단체(대학 포함) 연구기능이 발달한 특징을 보여준다. 한편, 여성 전문직 노동이주자는 용산구, 동두천시, 팽택시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는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힘들다. 예술홍행과 관련된 이주자가 미군 부대 주변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판단된다.

단순직 노동이주자는 주로 제조업에서 일하는 이주자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서울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단순직 노동이주자의 90%는 남성이다. 단순직 노동이주자가 주로 거주하는 곳은 김해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수도권 내 공장이 발달한 곳이다. 화성시는 우리나라에서 단순직 노동이주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수도권의 남서부 공업지역이 하나의 벨트(화성-안산-시흥-인천-김포)로서 기능하면서 단순직 노동이주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들 노동자의 대부분은 아시아의 이주자로 이들은 공장 내부의 숙소나 주변지역의 자가 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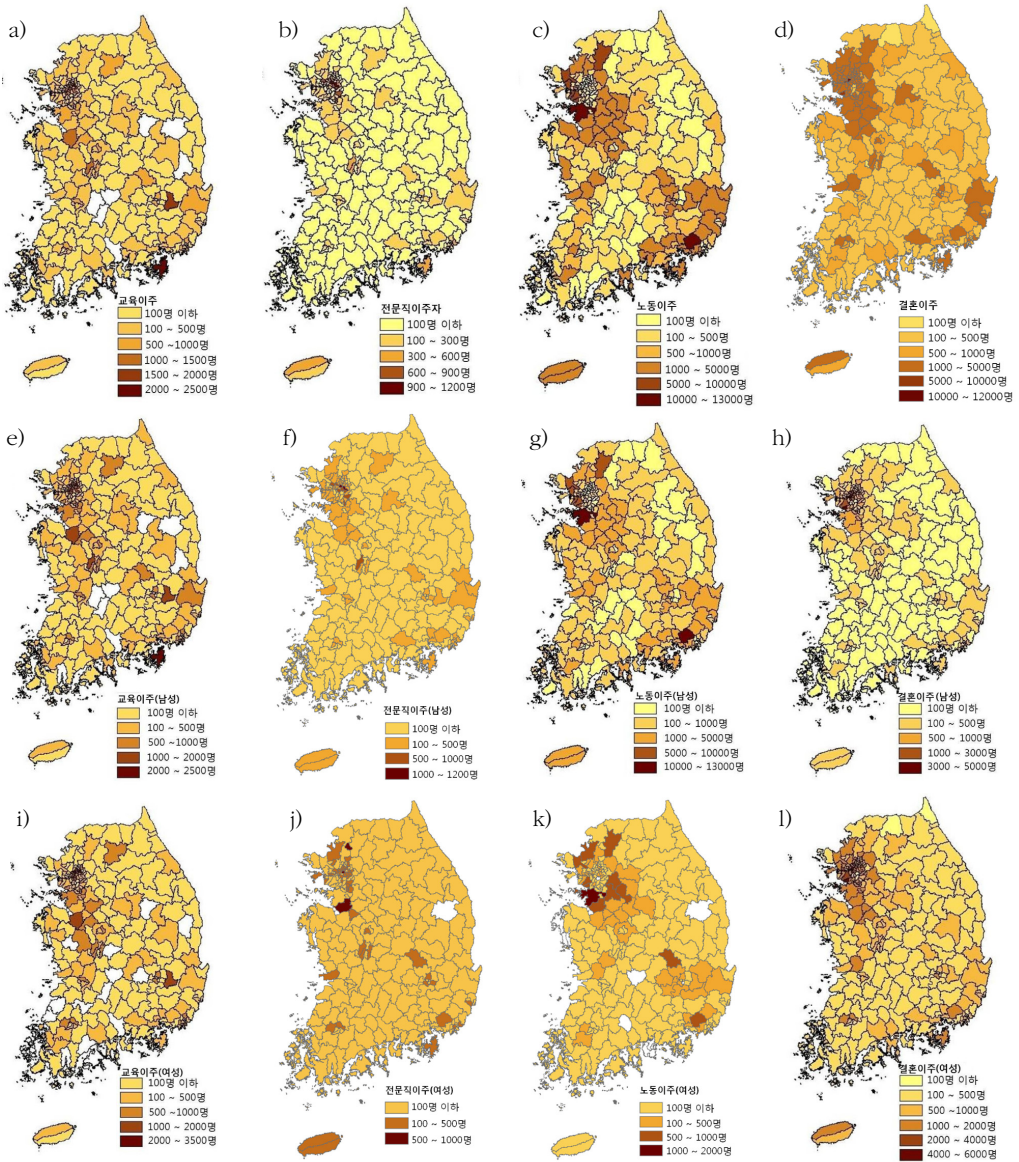


그림 8. 전국 시군구별 체류 유형별 이주자 분포

자료 : 법무부, 2011; 통계청, 2010

### 3. 결혼이주자의 공간분포

우리나라에서 결혼이주자가 증가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 농촌지역으로 결혼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이용균, 2007).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농촌보다는 도시의 결혼이주자

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해의 이주자가 집중된 지역에서 결혼이주자의 유입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결혼이주자는 다른 이주자와 달리 여성 이주자가 86.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을 기준으로 결혼이주자의 54.8%가 수도권에 거주하는데, 서울 21.6%, 경기 27%, 인천 6.2%의 비율을 보인다. 최근 결혼이주자의 도시지역 거주비율은 88.3%

표 5. 교육이주자 상위 거주지역

순위	전체(명)	남성(명)	여성(명)
1	동대문구(5,561)	거제시(2,344)	동대문구(3,262)
2	성북구(4,194)	동대문구(2,299)	성북구(2,319)
3	서대문구(3,483)	용산구(1,935)	서대문구(2,171)
4	광진구(3,481)	성북구(1,875)	광진구(1,917)
5	경산시(3,129)	경산시(1,703)	종로구(1,440)
6	종로구(2,927)	광진구(1,534)	경산시(1,426)
7	동작구(2,691)	종로구(1,487)	관악구(1,184)
8	용산구(2,637)	유성구(1,362)	부산 남구(1,108)
9	거제시(2,449)	영등포구(1,360)	아산시(1,064)
10	관악구(2,385)	서대문구(1,312)	마포구(1,039)

출처 : 법무부, 2011

표 6. 노동이주자 상위 거주지역

순위	전문직 노동이주자			단순직 노동이주자		
	전체(명)	남성(명)	여성(명)	전체(명)	남성(명)	여성(명)
1	용산구(1,669)	강남구(1,194)	용산구(603)	화성시(14,418)	화성시(12,665)	화성시(1,753)
2	강남구(1,649)	용산구(1,066)	동두천시(545)	김해시(11,200)	김해시(10,553)	포천시(927)
3	분당구(1,065)	강서구(835)	평택시(534)	단원구(7,378)	김포시(6,752)	광주시(871)
4	영통구(1,050)	영통구(792)	강남구(455)	김포시(7,301)	단원구(6,538)	단원구(840)
5	강서구(963)	분당구(702)	분당구(363)	포천시(7,192)	남동구(6,471)	김해시(647)
6	서초구(938)	서초구(695)	달서구(326)	남동구(6,882)	포천시(6,265)	평택시(608)
7	마포구(796)	마포구(535)	서대문구(307)	시흥시(6,709)	시흥시(6,178)	구미시(604)
8	서대문구(791)	유성구(506)	마포구(261)	광주시(5,556)	인천 서구(5,242)	이천시(584)
9	평택시(767)	관악구(503)	영통구(258)	인천서구(5,553)	광주시(4,685)	치인구(558)
10	관악구(746)	서대문구(484)	제주시(257)	평택시(4,980)	평택시(4,372)	김포시(549)

출처 : 법무부, 2011

이고, 군지역의 거주자 비율이 단지 11.7%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최근의 결혼이주자 도시지역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결혼이주자의 성별에 따른 거주지역의 차이도 나타나는데, 남성 결혼이주자의 97.8%가 도시에 거주하는 반면에 여성 결혼이주자의 13.2%가 군지역에 거주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그림 8). 이는 이미 결혼이주자 도시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반영함과 동시에, 남성과의 국제결혼은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결혼이주자 상위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안산 단원구, 영등포구, 구로구, 시흥시, 관악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여성과 남성의 상위 거주지역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표 7) 이들 상위 지역의 특징은 소규모 공장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발달하였으며, 주변 지역에 낙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로부터 남서부에 위치한 공장지대와 일치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 일대의 저소득층 근로자가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찾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 V. 결론

이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외국인 이주자의 공간적 특성을 국적과 체류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표 7. 결혼이주자 상위 거주지역

순위	전체(명)	남성(명)	여성(명)
1	안산 단원구(2,934)	영등포구(908)	안산 단원구(2,251)
2	영등포구(2,653)	안산 단원구(683)	영등포구(1,745)
3	구로구(2,205)	구로구(672)	시흥시(1,687)
4	시흥시(1,988)	관악구(474)	구로구(1,533)
5	관악구(1,708)	금천구(432)	인천 부평구(1,241)
6	금천구(1,567)	용산구(384)	관악구(1,234)
7	인천 부평구(1,485)	시흥시(301)	화성시(1,182)
8	평택시(1,431)	광진구(273)	평택시(1,178)
9	화성시(1,345)	수원 팔달구(273)	금천구(1,135)
10	인천 남동구(1,260)	부천 원미구(267)	안산 상록구(1,073)

출처 : 법무부, 2011

이 연구가 국가와 체류유형별 이주자 형태를 통해 이주자의 공간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나 인종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이주자 패턴을 일반화하려는 시도는 아니며, 이보다는 이주자의 주체성을 강조한 로컬 변화를 살피기 위한 토대 연구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는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이동성의 증가와 우리경제의 성장 및 사회의 가치관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1년 현재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적과 체류 유형에 따라 거주하는 공간 패턴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 이주자 공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주자는 한국계중국인으로 그 숫자도 많지만, 장소의 집적을 통해 로컬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서울의 영등포구, 구로구, 안산의 단원구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 일본과 대만을 제외한 아시아 이주자들은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화성-안산-시흥-인천-김포의 공장지대벨트)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데, 대부분 단순직 노동이주자로서 남성이 대부분이다. 반면에, 일본을 포함한 OECD 이주자들은 서울 중심의 거주 패턴을 보인다.

이러한 이주자의 공간 분포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특정 장소로의 이주자 집적은 초기 이주자 정착지가 하나의 정착지로서 작용하면서, 이곳을 중심으로 이주자의 민족경제, 문화적 교류, 사회적 관계가 발달한다는 점이다. 즉, 이들 이주자 정착지는 이주자를 위한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계중국인은 가리봉동-

구로2동-대림2동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을 따라 집적지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관계가 국가와 초국가적 스케일에서 전개된다. 중국인은 한국계중국인 집적지역과 다소 거리가 떨어진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에 집적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이주자들은 안산, 화성, 김포, 김해 등 제조업 밀집지역에 일종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일본을 포함한 OECD 국가의 이주자들은 이촌-한강로-이태원-한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외국인을 위한 주거, 문화, 경제의 공간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프랑스 이주자들은 서초구의 프랑스 우호적인 분위기와 프랑스 풍의 주거지역의 조성 등에 영향 받아 서래마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교육이주자는 이미 한국사회에 뿌리를 내린 민족집단의 집중지역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 이주자의 정착에서 민족 집중지역(정박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결혼이주자의 거주지역 특성에서 주목할 점은 최근 결혼이주가 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으로, 특히 도시 저소득층 남성의 수요에 의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도시 저소득 지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향후 지역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주자 공간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이주자의 공간은 국적과 체류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주자 정책 수립에서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주자의 공간은 하나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이주자의 공간은 시간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이주자 연구와 정책 수립에서 이주자의 국적과 체류유형에 따른 특징을 세부적으로 파악하면, 정책 수립에 보다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주자는 정착과정에서 이주자의 집적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자본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족이나 인종 그리고 국가에 따라 이주자의 정착지(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주자 연구나 이주 정책의 수립에서 이주자 집단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자

의 유입이 증가할수록 새로운 이주자의 정착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이는 결국 로컬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의 초기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중장기 연구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주자는 단순히 정착지에 적응하고 동화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회적 관계를 공간적으로 확대하면서 트랜스이주자가 됨과 동시에, 로컬에 뿌리를 내리면서 로컬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주체에 해당할 것이라는 가정이다. 이 연구는 이주자의 공간을 지도화하고 이주자의 국적과 체류유형별 공간분포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었기에, 이주자가 왜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장소를 점유하고, 로컬을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구즈먼, 2011, 떠도는 삶, 필리핀 ‘가족’과 해외노동이주의 감정성, 허라금(역음), 「글로벌 아시아의 이주와 젠더」, 한울.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10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김이선·민무숙·홍기원·주유선, 2011a,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V): 다문화사회 정책의 성과와 미래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민무숙·김경미·주유선·이정원, 2011b,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류주현, 2012, “결혼이주여성의 거주 분포와 민족적 배경에 관한 소고: 베트남·필리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8(1), 71-85.

법무부, 2011,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자격별 등록외국인 현황.

송도영, 2011, “도시 다문화 구역의 형성과 소통의 전개방식: 서울 이태원의 사례,” 담론 201, 14(4), 5-39.

신주백, 2007, “용산과 일본군 용산기지의 변화(1884-1945),” 서울학연구, 29, 189-218.

이영민, 2011, “글로벌화와 공간질서의 재구성: 로컬리티 개념과 문화연구, 인류학의 위치를 묻다,” 2011년 한국문화인류학회 하반기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199-213.

이용균, 2007,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문화 네트워크의 특성: 보은과 양평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35-51.

이용균, 2012, “호주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에서 자유시장 원리와 조절 메커니즘의 접합,”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5(1), 33-46.

임석희·송주연, 2010,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현황과 지리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75-294.

최병두, 2009, “한국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19-343.

통계청, 2010, 인구주택총조사(내부자료).

포르티어, 2011, 디아스포라, 이영민·진종현·박경환·이무용·박배균 역, 「현대문화지리학」, 논형, 333-342.

황정미·문경희·신미나, 2011, 「교육이주의 추이와 미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Brickell, K. and Datta, A. eds., 2011, *Translocal Geographies: Spaces, Places, Connections*, Burlington: Ashgate.

Dahinden, J., 2010, 'The dynamics of migrants' transnational formations: between mobility and locality, in Baubock, R. and Faist, T. eds., *Diaspora and Transnationalism: Concepts, Theories and Methods*, Amsterdam: Amsterdam University Press, 51-72.

Dahlman, C., 2004, Diaspora, in Duncan, J., Johnston, N., and Schein, R. 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ing, 485-498.

Gielis, R., 2009, A global sense of migrant places: towards a place perspective in the study of migrant transnationalism, *Global Networks*, 9(2), 271-287.

Gilmartin, M., 2008, Migration, identity and belonging, *Geography Compass*, 2(6), 1837-1853.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2011, *World Migration Report 2011*.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OECD Indicators, OECD.

McEwan, C., 2004, Transnationalism, in Duncan, J., Johnston, N., and Schein, R. eds., *A Companion to Cultural Geography*, Malden: Blackwell

- Publishing, 499-512.
- Mitchell, M., 2000, Networks of ethnicity, in Sheppard, E. and Barnes, T. eds., *A Companion to Economic Geography*, Malden: Blackwell Publishers, 392-408.
- Samers, M., 2010, *Migration*, London: Routledge.
- Schiller, N. and Çağlar, A., 2009, Towards a comparative theory of locality in migration studies: migrant incorporation and city scale,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5(2), 177-202.
- Vertovec, S., 2009, *Transnationalism*, London: Routledge.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2, Trends in International Migrant Stock: The 2008 Revision, <http://esa.un.org/migration/index.asp>?(접속일자, 2012년 7월 5일).

교신: 이용균, 120-750,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교육과 (이메일: yonggyunlee@ewha.ac.kr)

Correspondence: Yong Gyun Lee, 120-750, 52 Ewhayeodae-gil, Seodaemun-gu, Seoul, Korea,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Email: yonggyunlee@ewha.ac.kr)

투 고 일: 2012년 7월 15일

심사완료일: 2012년 7월 30일

투고확정일: 2012년 8월 4일